

## 미나미 알프스의 꽃과 숲

### 각 서식지마다 생존하는 식물

미나미 알프스는 산림한계선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해발 2,700m 높이까지 산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림한계선이 높은 이유는 토양의 수분 유지량과 같은 지형적 요인과 여름은 비교적 강수량이 높은 반면 겨울철에는 비교적 적설량이 적은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 이 두가지 때문입니다.

산림은 저산대(해발 800m 이하), 산지대(해발 800-1,600m), 아고산대(1,600-2,700m), 고산대(해발 2,700m 이상)의 4 가지 지대로 뚜렷이 구분됩니다. 각 지대마다 그 지대의 독특한 식물군이 존재합니다. 저산대에는 상록활엽수림이 서식하며, 참나무,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등이 주요 식물입니다. 너트나무, 솔송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나무들이 산지대에 서식합니다. 아고산대에는 가문비나무와 베이트키전나무를 대표하는 상록침엽수가 주종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고산대로 올라가면 나무들의 모습에서 혹독한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내린 눈의 무게로 사스래나무는 팔이 굽은 듯한 모양으로 산등선을 따라 가로로 뻗어 있고 눈잣나무는 해발 높이에 따라 키가 작아져서 해발 2,700m에서는 사람의 머리 높이에 이르지만 산정상에 가면 무릎 아래 높이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고산대에는 나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꽃이 늘어납니다. 미나미 알프스의 고산 초원에는 매우 다양한 꽃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기금매화(*Trollius japonicus*)와 바람꽃(*Anemone narcissiflora*), 이 2 종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